

올해 첫 LPGA 메이저대회 오늘 개막... 고진영·전인지 우승 도전

LPGA 첫 메이저대회 세브론 챔피언십 개막

전인지 비롯 고진영·김효주·유해란 등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메이저 대회인 오는 20일 열리는 가운데 태극 남자들이 우승에 도전한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번째 메이저 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이 오는 20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텍사스주 우드랜드 클럽 옛 칼튼 우즈 잭 니클라우스 시그니처 코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첫 메이저 대회다. 1972년 켈게이트 다이내쇼어 위너스클럽이란 대회로 창설된 이 대회는 1983년 메이저 대회로 승격됐다. 스폰서는 켈게이트 이후 크래프트 나비스코와 일본의 ANA항공 등이 맡았고 지난해부터 세브론이 메인 후원사가 됐다. 여자 골프

5대 메이저 대회는 세브론 챔피언십을 비롯해 6월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7월 US오픈과 에비앙 챔피언십, 8월 AIG 여자오픈이다.

세브론 챔피언십은 이른바 '호수의 여왕'으로 불리던 ANA 인스피레이션을 계승한 대회다. 다만 우승자가 호수에 뛰어든 전통은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제니퍼 켈츠가 첫 메이저 우승을 거뒀지만 한국 선수들이 이 대회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다. 유소연(2017년), 고진영(2019년)을 비롯해 이미림(2020년)까지 한국 선수들은 이 대회에서만 6승을 쌓았다.

한국에서는 고진영, 전인지, 김효주, 최혜진, 유소연, 유해란, 박성현, 김세영, 이정은6 등 16

명이 출전한다.

특히 지난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메이저에서만 3승을 쌓은 전인지는 새로운 메이저 대회 우승을 통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노린다.

전인지는 2015년 US여자오픈,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 지난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LPGA투어 메이저 우승컵 3개를 땀다. 이제 세브론 챔피언십이나 AIG여자오픈에서 1승을 추가하면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한국 선수 중에서는 골프여제 박인비가 유일하게 보유한 기록이다. 전인지의 허리 통증 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리디아 고와 벨리 코다도 이 대회 우승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우승후보로 거론된다.

이번에는 대회 장소가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대회가 열리던 미국 서부 미션힐스를 떠나



올해는 미국 중남부 텍사스주에서 대회가 열린다.



뉴시스

전남 카누 전국대회서 금 2개·은 9개·동 5개 수확



전남체육고등학교 카누팀.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카누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 등 총 1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제 40회 회장배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목포해양대와 전남체고, 목포제일여고, 삼호중 카누팀이 금메달 2개, 은메달 9개, 동메달 5개

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체고 홍정현과 박철웅은 남자 고등부 k-2 200m에서 40초075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조유빈·이진솔·김성우·이호준 조도 k-4 200m에 출전해 37초 368로 금메달

을 획득했다.

홍정현은 k-1 200m에서도 41초 363으로 동메달을 수확했다.

전남도청 카누팀은 여자일반부 k-1 200m에서 김소현이 44초083로 결승선을 통과해 은메달, k-2 200m에서도 임성화와 조를 이뤄 출전해 40초 317로 은메달, k-4 200m에서 김소현·임성화·탁수진·김현희조 38초 871로 은메달을 가져왔다.

지난해 창단한 목포해양대 카누팀은 남자 대학부에서 동메달 3개, 여자 대학부에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여고부에서는 목포제일여고 김예원·김한설·이예진·이행은 조가 k-4 500m에 출전해 2분 18초 473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중등부에서는 삼호중학교 김성현·신진성·변승진·김권호 조가 k-4 200m에서 46초 236으로 은메달을, k-2 500m에 김성현과 신진성이 출전해 2분 7초 104로 은메달을 수확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정현, ATP 서울오픈 챌린저 출격...2년여만 단식 출전

허리 부상 털고 복귀

호주오픈 4강 신화의 주인공 정현(28)이 24일 개막하는 남자프로테니스(ATP) 서울오픈 챌린저에서 약 2년 7개월 만에 단식 복귀전을 치른다.

서울오픈 챌린저 토너먼트 디렉터를 맡은 유진선 전 의정부시청 감독은 18일 "정현이 본선 와일드카드를 받고 단·복식에 모두 출전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현이 단식 경기를 치르는 것은 2020년 9월 프랑스오픈 예선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당시 정현은 예선 1회전을 통과했으나 2회전에서 패배해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복식 출전은 권순우(당진시청)과 호흡을 맞췄던 지난해 9월 ATP 투어 서울오픈 이후 7개월 만이다. 정현-권순우 조는 서울오픈 복식에서 4강까지 진출했다.

정현은 2018년 호주오픈 단식에서 4강에 진출하며 역사를 썼다. 한국 선수의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이다.

그러나 이후 고질적인 허리 부상 등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허리 부상을 털고 지난해 서울오픈 복식에 나선 정현은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오픈 챌린저 단식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허리 통증이 재발해 불발됐다.

이후 다시 재활에 들어갔던 정현은 7개월 만



에 실전 코트에 서게 됐다.

ATP 챌린저는 ATP 투어 아래 등급으로 세계랭킹 100위권 안팎의 선수들이 주로 출전한다.

24~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오픈 챌린저에는 맥스 퍼셀(호주·88위), 크리스토퍼 유뱅크스(미국·90위), 조던 토폰스(호주·91위) 등이 출전할 예정이다.

영암서 23~24일 국내 대표 아마추어 모터스포츠 대회

'2023 KIC-CUP' 4개 종목·8개 클래스 진행...관람석 무료개방



국내 대표 아마추어 모터스포츠 대회인 2023시즌 'KIC-CUP투어링 카 레이싱'(KIC-CUP)이 오는 23~24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올해 9년차를 맞는 KIC-CUP 대회는 코로나 19 확산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대회규모와 현장 구성을 확대 운영한다.

대회 주최 측인 전남개발공사 측은 '입장은

자유롭게, 관람은 뜨겁게, 온몸은 즐겁게'라는 주제로 파스한 봄날만큼이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주말 나들이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대회 기간 서킷 위의 피겨 '묘기 드리프트 동승 체험'을 비롯해 우리집 친환경차로 서킷을 직접 주행하는 '패밀리 서킷 투어 체험', '미니 모터쇼 이벤트', '에어바운스',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다.

이번 대회는 4개 종목, 8개 클래스로 진행되며 한국형 포뮬러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KF-1600 클래스를 비롯해 아마추어 레이서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양보 없는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22일 연습주행부터 23일 결승전까지 양일간 8000여석의 관람석이 전면 무료로 개방된다.

전남도, 광주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주관방송사인 리빙TV를 통해 녹화중계 된다. 관련 문의와 자세한 사항은 대회 사무국(061-288-4207) 또는 국제자동차경주장 공식 누리집(www.koreacircuit.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클린스만 감독, '대표팀 은퇴 해프닝' 김민재 만나 '활짝'

이탈리아 찾아 김민재와 면담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이 손흥민(토트넘), 오현규(셀틱)에 이어 김민재(나폴리)를 만나 유럽과 점검 일정을 이어갔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이탈리아로 이동한 클린스만 감독과 스트링가라 코치가 18일(현지시간) 나폴리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나폴리-AC밀란 경기를 관전하고 김민재 선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알렸다.

협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모두 밝은 표정이다.

김민재는 이날 AC밀란과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경고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유럽과 점검 일정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상이 김민재다.

김민재는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국가대표 사령탑 데뷔 무대였던 지난해 A매치 기간에 국가대표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난달 28일 우루과이와 평가전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김민재는 "멘탈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에만 신경을 쓰고 싶다"고 했다.

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하루 만에 "힘들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며 해명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김민재가 해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흥민이 SNS에 "나라를 위해 뛰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이다. 오랜만에 휴경기 치르면서 축구가 받고 있는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라고 썼다.

같은 날 대표팀 핵심 선수인 둘이 이런 글을 올리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겼고, 둘이 SNS 관계를 끊었던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에 김민재는 소속사를 통해 손흥민과 SNS 관계를 끊었던 걸 인정하며 "(손)흥민이해과 관련해 제 생각이 짧았고, 잘못했다. 오해였다"며 "흥민이 형에게 따로 연락해서 사과를 드렸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오타니, 시즌 4호 결승포 폭발... "충알 같은 타구" 경악

오타니 쇼헤이(29·LA 에인절스)가 시즌 4호 홈런을 터뜨렸다.

오타니는 1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1회초 결승 투런 홈런을 날렸다. 1회 무사 2루에서 등장한 오타니는 볼카운트

트 2-0에서 양키스 선발 클락 슈미트의 3구째 한가운데로 몰린 88.7마일(142.7km) 스피어를 공략해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타구 속도가 무려 116.7마일(187.8km)로 괴력을 발휘했다. 뉴욕포스트는 "충알 같은 타구"라면서 오타니의 힘에 놀랐다.

1923년 4월19일 베이브 루스가 양키스타디

움 역사상 1호 홈런을 쳤고,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날 오타니가 홈런을 터뜨려 더욱 의미 있는 기록이 됐다. 오타니는 3회수 1안타 2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00(60타수 18안타)으로 높아졌다.

에인절스는 오타니의 활약을 앞세워 5-2로 승리했다.